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8강: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 빌립보서 2:12-18,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번 강의는 여덟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2-18절 말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입니다.

빌립보서 연구 여덟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풍성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가짐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장 12절에서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원망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십시오. 비록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에 부어지는 전제물처럼 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본문과 빌립보서 2장 5-11절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그리스도 찬송과 연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신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서두,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임재와 부재를 언급합니다. 한편으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순종을 칭찬하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2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리스도 찬송과 연결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순종이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28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듣고 싶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권위자가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권위자에게 더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순종을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바울에게 순종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현실을 상기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끝맺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관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걸린 영원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실체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개 하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경외감과 놀라움, 그리고 존경심을 결합한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위엄에 압도되어 실제로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설명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셋째 로 , 두려움과 떨림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사명을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도록 해 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네가 할 차례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나중에 다시 보자. 힘든 길이겠지만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어떻게 될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1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거나 경건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점진적인 성화

, 즉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 곧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격에 더욱 반영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경건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믿는 자들의 격려와 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과 실천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이나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성화에 관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에스겔 36장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 하시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비록 ‘새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절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듣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임할 때, 그분의 영을 백성 안에 넣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종종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마음속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제 마음의 갈망을 바꿔 주십시오. 제 성향을 바꿔 주셔서 주님과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소망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노력하고, 거룩함을 향해 힘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오류는 정반대로 “나는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두 배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더 많은 구조를 마련해야 하고, 올바른 규칙과 구조와 원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따르면 경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제가 원래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하라"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데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먼저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라."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수많은 명령 중에서 투덜거림을 첫 명령으로 삼았을까요? 그렇다면 투덜거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투덜거림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과 같은 말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은밀한 대화, 즉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투덜거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투덜거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식량 부족, 물 부족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용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실패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전문 용어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실패를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데 자주 쓰이는 용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 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질문'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하십시오." 이 말은 마치 논쟁이나 토론을 하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항상 반박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늘은 파랗다"라고 하면 "정말 파랗나요?"라고 따지며 논쟁하려 들죠. "잔디는 초록색인가요?"라고 물으면 "정말 초록색인가요? 어쩌면 이 색깔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라고 되묻는 것처럼요.

바로 이런 성향이 항상 무언가에 도전하고 반박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용어를 결합하여 곁으로 드러나는 말뿐 아니라 마음속 생각과 태도까지 포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비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행동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흠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뚤어지고 변덕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는 “흠 없고 순결한” 과 “순결한” 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순수함,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원망이나 불평, 죄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은 우리가 비뚤어지고 변덕스러운 세대, 또는 어떤 번역에서는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다른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32장 5절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언약을 어기고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증거, 즉 증거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바울 은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표현을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명기 32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반석이신 그의 일은 완전하시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도다. 그는 신실하시고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롭고 정직하시도다.” 이제 신명기 32장 5절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불의를 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자들이라. 그들은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대라 .”

바울 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대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32장 5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불충실했던 이스라엘이 결코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빛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12장 3절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다니엘 12장 3절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암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많지만, 다니엘 12

장은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부터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리니 어떤 이는 영생을 얻고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3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요, 돌이켜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빛나라” 라고 말할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별처럼 빛난다” 는 표현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영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9장 6절에서 종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만국의 빛이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과 대조적으로 두드러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흠 없고 순결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사야 49장 6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굳게 붙잡으라” 고 말합니다 . 또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굳건히 붙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참고하는 1984년판 NIV 원본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밀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 수 있죠? ‘굳게 붙잡다’ 와 ‘단단히 붙잡다’ 의 차이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전도하다’ 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적인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굳게 붙잡다’ 또는 ‘단단히 붙잡다’ 에 더 가깝고, 아마도 이것이 바울이 의도한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암시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3절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굳게 붙잡다’ 라는 의미가 더 타당할 것입니다. 바울이 칠십인역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했다면, 마소라 본문은 ‘전도하다’ 라는 의미를 더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을 참고했다면, 역시 ‘전도하다’

라는 의미가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때로는 이러한 암시를 통해 구약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 저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16절 끝부분에 이르러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충만하여 서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과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작은 오해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16절 끝에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자랑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사야 49장 4절에서 여호와의 종을 묘사하는 구절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사야 49장의 표현과 관련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희생 제사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며 이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믿음의 제사에 부어지는 전제물처럼 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당시 청중에게는 익숙했을 테지만, 음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문화권에 사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음료 제물이 주된 희생 제물에 대한 보완적인 제물로 부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주된 제물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이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그 제물에 부어지는 음료 제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잠시 자신이 여러분의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는 음료 제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의 희생'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생각이지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너희의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로서 내 생명을 바칠 특권을 누린다면, 나는 너희가 기뻐하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에 너희도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좀 더 깊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서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합니다.

둘째 ,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적인 섬김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풍성한 구절에는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제

적용 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고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이건 어쩔 수 없지. 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라고 마지못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할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항상 이 모습일 거야. 네가 지금 모습에서 달라질 희망은 전혀 없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깊이 뿌리내린 죄악된 성향과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 그런 일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인 경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매우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 평생 동안 화를 내고 싶은 유혹과 의식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굳어진 죄악된 패턴 속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종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또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아,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할 삶의 특정 영역 하나를 정해 보세요. 끊임없이

어려움 을 겪는 영역을 선택하고, 주님께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또한, 그 영역에서 경건하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 다음 절

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매튜 S. 하몬 박사의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여덟 번째 강해, 빌립보서 2장 12-18절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입니다.